攝心 信實 慈愛 度世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라-2143호 · 월간 · 비매품

東友會報

1990年(檀紀4323年) 7月10日 第146號〔1〕

발행인 鄭在哲
편집인 張秀正
인쇄인 張明錫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 733-3993(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012328-31-0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第52次 定期理事會 盛了

1990년도 豫算案통과·會則 개정도
鄭會長, 同窓會館건립 靑寫眞밝혀

▲鄭在哲 會長

「제52차 定期理事會」가 지난달 29일 오후7시 동국관5층 로비에서 鄭在哲 회장, 文泰植수석부회장, 申國柱총장 등本會회장단, 운영위원, 상무이사, 이사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張秀正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회장인사, 안건토의, 기타사항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理事會에는 회의에 참석지 못한 임원 1백42명이 사전에 本會 사무국으로 참석위임 통보를 해왔다.

이날 理事會에서 鄭회장은 「정계·재계및 문화계에서 맹활약하여 東國을 빛낸 동문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시작한 인사말에서 「작년에는 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새로 발족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금을 모아 동창회운영을 마무리 지었다. 이리하여 본격적인 동창회 자립운영 체제를 굳게 다지게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는 여러동문들의 아낌없는 후원 덕분이라 생각한다」라 말하고 「동창회의 자립운영체제를 바탕으로한 이런 도약의 시점에서 동창회관 건립의 설계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시급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미 동창회관 건립자금도 반정도 준비되었으니 올 가을쯤에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진행할 예정인데 전동문의 참여의식속에 진행된다면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동국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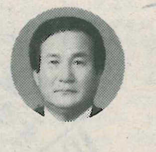
이어 崔致根 상임부회장의 진행으로 경과보고, 결산감사보고, 사업계획및 예산안승인, 회칙개정안 심의등의 순서로 안건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1억2백만원 규모의 90년도예산안이 승인되었으며 운영위원에 대한 새로운 회칙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보2면>

本會運營委員會 3차모임
運營委員 3명보강

▲權魯甲위원

▲鄭寬溶위원



▲金炯成위원

本會 運營委員會 제3차 모임이 金銘善 (61經濟·<주>동진會長)운영위원자택에서 지난5월26일오후6시 鄭在哲議長을 비롯한 운영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90년도 운영위원회가 추진해야할 사업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34명으로 구성된 기존운영위원회에 權魯甲(53經濟·본회부회장) 國會議員과 鄭寬溶(58法學·본회부회장) 석탄공사이사장을 보강했다.

한편 金炯成 (61經濟·韓一廣告代表理事) 同門은 최근 운영위원에 선입됐다.

▲權魯甲위원=13代國會議員. 本會부회장으로 東國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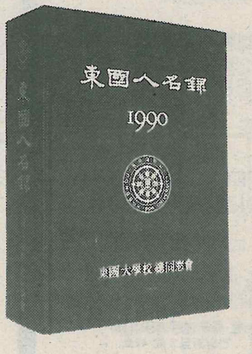
▲鄭寬溶위원=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 총무처장관, 내무부장관등을 역임한 관료출신. 현 석탄공이사장.

▲金炯成위원=현 韓一廣告 대표이사. 국제라이온스 309A지구 청도회장.

東國人名錄(6집)배포
8萬 東國人脈의 記錄

本會는 8萬 東國人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84년의 제5집에 이어 6년여만에 東國人名錄 제6집을 발간, 현재 同門 여러분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발간한 제6집은 1908년 明進學校 졸업생부터 89년 卒業生까지 大學別·學科別·卒業年度別로 同門들의 現住所·직장 및 직위·전화번호등을 수록, 명실상부한 東國人脈의 記錄으로서 同門상호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結束을 다져주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購入 안내
▲代金 : 卷당 3만원
▲購入 方法
①本會사무국에서 직접 購入
②全銀行 全國各支店 99번창구에 대금납입 지로번호(7500891)
우송료 개인부담
※지로를 보낼때 인명록받으실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해주시면 지로통지서가 도착되는 즉시 우송해 드립니다。
연락처 :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BD12층
동국대총동창회 사무국
전화번호 : 733-3991~3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事務局

東國人名錄 제6輯 發刊

全東國人의 架橋役割 기대

1908년 명진학교 졸업생부터 1989년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명실상부한 東國人脈의 산기록이 될「東國人名錄」제6집이 發刊되었다. 이번 제6집에는 각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8만여 전 동문의 현직및 현주소, 연락처가 등재되어 동문과 동문, 모교와 본회 사이의 架橋役割은 물론 결속을 다져주는 기틀이 되어줄것이 기대된다.

그동안 本會에서는 동문조지의 활성화와 동문간의 유대강화,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하여 국내외 조직강화에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84년에「東國人名錄」제5집을 발간하기까지 계속해서 증보판을 발간해왔으며 이번에 제6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본회사무국에서는 8만여 동문의 명단작성, 주소 및 전화번호 파악, 각 지부조직과 각대학 학과를 통한 정확한 자료수집등의 작업을 거쳐서 제6집을 내놓게 된것이다.

「東國人名錄」제6집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교 및 본회화보, 모교현황, 동창회현황, 지부·지회 조직현황 및 임원명단, 명진학교부터 종합대학교 승격 이후 현재까지의 각대학원 석·박사 학위취득자등 모든 동문들의 신상현황과 인명색인등이 수록되었다.

1년여의 방대한 작업끝에 발간된 이책은 4×6배판, 총1천4백65쪽으로 1천5백부를발간했다.

지난달 29일 定期理事會에서 배포되기 시작한 이 책자는구입을 원하는 모든 동문들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많은 동문들의 구입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구입장소는 본회사무국이며 가격은 30,000원이다.

89.90會計年度 예·결산 收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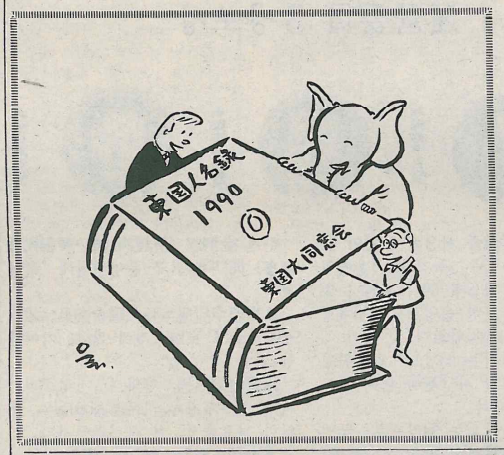
收 入

項 目	89 豫算額	89 決算額	90 豫算額
전기이월금	412,989	412,989	121,362
동창회비 88년 장여분	0	18,303,000	0
회장단 분담금	10,000,000	1,400,000	2,500,000
년 회 비	20,000,000	6,698,154	7,000,000
이 사 회 비	20,000,000	5,550,000	8,000,000
상무이사 회비	10,000,000	2,800,000	5,000,000
광 고 료	10,000,000	1,400,000	2,400,000
수 입 이 자	39,000,000	255,752	24,096,929
퇴 직 연 금	0	5,000,000	0
기 금 보 조	0	34,774,023	50,000,000
기 타	587,011	8,941,496	3,181,709
計	110,000,000	85,535,414	102,300,000

支 出

項 目	89 豫算額	89 決算額	90 豫算額
회 의 비	1,000,000	1,344,031	1,500,000
조 직 강 화 비	3,000,000	637,290	1,000,000
경 조 비	7,000,000	5,085,000	5,500,000
회 보 간 행 비	23,000,000	18,038,480	23,000,000
장 학 금	4,000,000	4,200,000	5,000,000
고시학사지원금	0	5,000,000	5,000,000
재학생 보조금	5,000,000	4,550,000	3,000,000
인 건 비	20,000,000	10,490,000	18,000,000
상 여 금	8,000,000	5,190,000	6,000,000
활 동 비	2,400,000	3,700,000	7,200,000
교 통 비	3,000,000	3,142,860	3,000,000
출 장 비	1,000,000	310,300	500,000
인 쇄 비	1,000,000	732,000	1,000,000
통 신 비	3,000,000	2,475,310	3,000,000
소 모 품 비	1,600,000	1,197,965	2,000,000
수 수 료	0	69,000	80,000
퇴 직 금	2,000,000	11,750,000	2,000,000
예 비 비	4,000,000	2,087,963	7,220,000
구 독 료	0	261,900	300,000
행 사 비	3,000,000	2,403,000	3,000,000
사무실 관리비	18,000,000	248,953	0
기지급이자환급	0	2,500,000	5,000,000
인령록회계지출	0	121,362	0
차기이월금	—	—	—
計	110,000,000	85,535,414	102,300,000

東友漫評 鄭雲耕



"雄飛東國" 結束의 자리

——第52次 定期理事會 詳報

「제52차 정기이사회」가 지난달29일하오7시 모교 동국관 5층로비에서 열렸다.

본회회장단과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열린 이날 이사회는 회장인사에 이어 안건 토의가 진행되었는데 경과보고는 일반회무보고, 운영위원회의 발족및 그기여도, 장학사업및 재학생지원, 주요업무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金在基수석감사를 대신해서 南基一감사의 감사보고와 崔致根상임부회장의 89회계년도 결산(별표참조) 보고가 있었으며 모두 통과되었다.

90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심의에서는 동창회관건립 추진운동, 총동창회 자립운영 기반조성, 조직강화사업 등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특히 전 東國人의 가교역할을 하고 결속을 다져줄「東國人名錄」제6집이 발간되었다는 소식에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곧이어 회칙개정안 심의에 들어가 운영위원에 대한 새로운 회칙(제13조 3항신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밖에 기타의견으로 동창회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동우회보의 광고 수입을 확대하여 운영의 균형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많은 동문들이 공감을 얻었다.

이어 申國柱 모교총장은 축사에서『그동안 학교가 어려운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동문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헤쳐나왔다. 특히, 이번의 대학평가단 감사에 있어서는 교수·직원·학생이 하나가되어 감사를 받은 결과 발전가능성에대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며『옛 명문 동국대의 명성을 재현시키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동국인이 단합하여 이끌어나가는 일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회의 순서를 모두 마친뒤 연회장에 미리 준비된 음식을 들며 앞으로의 동창회운영방안과 동국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가는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웠다.

회비…1년에 1만원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世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타폰, MDF설치
• 컴퓨터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 椿 煥 (74경영)
중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桃園꽃집
화환·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회분·동·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충무로 4가125-1
진양빌딩 3층 42호

會費·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PPI리서치
정치광고·여론조사
所長 鄭 性 烈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2가 65-19
(우진 B/D305-306호)
TEL : 393-7585~7
FAX : 393-7587

각급단위同門會 "활발한 모임"

정기총회·동문의밤 등으로 東國愛 앙양

▲忠北·淸州支部는 최근 정기모임을 갖고 새회장에 崔鍾泰(61·법학) 동문을 선출했다。한편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崔동문은 지난 3월9일자로 청주MBC심의실장에서 총무국장직으로 전보되었다。연락처 청주 53—3313

▲政治外交學科 同門會 (회장 朴翊柱)는 지난 6월11일 오후 6시 서교호텔 별관 3층 크리스탈룸에서 180여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제3회 동문의밤」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愼順範(61 정치 평민당사무총장)국회의원이「섭리적으로본 역사의 흐름」이라는 주제를 갖고 현시국에 대한 세미나를 했다。이날 모임에서는 자체 예결산 심의가 있었으며 정치외교학과 수험을 제작 배부하고 1학기에 지급한 재학생 장학금을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할것을 결의했다。

▲在호주 동문회(會長 李晶浩 55·英文)는 추광문(86전기)동문을 통해 다채로운 喜報를알려왔다。

해외여행 자율화조치에 따라 호주를 방문하는 동문들이 점차 늘어나고있는 추세를 감안 출국 전후에 세방여행사(호주 (02)235—1766)에 미리 통보를 할경우 동문이나 동문가족에한해서 최우선·최저렴·최우대로 모시겠다는 소식와 함께 호주유학을 원하는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유학의 길잡이가 되주겠다는 내용이 그것。

한편 호주 전체동문은 아직도 정확히 파악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本회보를 통해 더 많은 동문들이 결집되기를 기원한다고。(시드니만 48명 회원등록)

연락처)李晶浩(55英文)세방여행사 전화(02)899—1271, (02) 235—1766

추광문(86전기)전화(02)789—2048 현재 시드니소재 Univ.of N.S.W대학원 재학중

▲식품공학과 8회동문제 2회 정기총회가 지난6월8일 신사동 동호민물장어집에서 회원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있었다。

이날 모인 동문들은 그간밀린 情談으로 우의의시간을 가졌다고。

經大院 同門會 定期總會

"앞서가는 同門會 만들기"다짐

經營大學院 同門會(會長 李起彬 국회의원)는 지난6월9일 오후3시 모교 동국관5층 강당에서 李起彬(79經院·本會 부회장)회장, 趙熙榮(63經營·本會이사) 經營大學院長을 비롯한 任·會員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예결산심의와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趙熙榮 院長취임축하패 증정이 있었다。

한편 李會長은 인사말을 통해「1년간 회장으로써 맡은바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 여러同門들과 임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협심단결하여 他에 모범이 되는 同門會를 가꾸어 나가자」고말했다。

行大院, 올해 첫 理事會

행정대학원 동문회 (회장 尹鎰均·한무개발(주)고문) 는 90년도 제1차 이사회겸 임원연석회의를 지난 5월25일 캐피탈호텔 신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尹鎰均 행정대학원 동문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90년 주요사업 계획및 회계업무등의 경과보고와 회칙개정 임원들의 추대패 증정, 임원 상호간의 상견례가 있었다。한편 尹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는 임원및동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本會 張秀正 사무국장

本會 事務局長에 張秀正(67입학) 동문이 盧德一씨후임으로 지난6월1일 임명됐다。신임 張국장은 母校재학시 총학생회 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ROTC 5期로 임관하여 육군중위로 예편, 한국수산개발공사 수산부 선원과장및 同차장, 기획관리실 부장등 17년간 봉직했으며 최근에는 삼익패션타운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해왔다。

本會來訪

▲孫英燮(52政治학도의용군회 총재)▲金億謙(71農學 삼화인쇄소)▲許正均(49文學 수도여고교사)▲金仁大(86史學 천태종보사 기자)▲金榮一(63政治본회이사)▲金永秋(64法學 慶星大교수)▲姜俊庸(49文學)▲羅得煥(83經院본회상무이사) ▲康眞遠(72經營대명레저총무부장) ▲嚴泰根(63佛敎본회상무이사)▲元容璇(63英文남양전기대표이사, 本會운영위원) ▲南基一(72經營삼연유지전무이사, 本會감사)▲白南吉(49文學시인)▲金圭鎭(67史學 本會이사)▲全璿柱 (49文學 삼광인쇄문화사代表 본회이사) ▲康大元(52政治 제주신문사理事, 제주지부회장)▲金淳泰 (52經濟고려경보기대표이사본회이사)▲김영봉 (연영과재학생) ▲박종명(87林學) ▲金濟局(61經濟 강남고려병원이사장 본회운영위원) ▲李殷甲(72經營동화은행고객부차장본회이사)▲이영옥(90무역)

同窓會館建立의 當爲性

東友斷想

"1백주년 東國을 동창 회관건립과 함께 맞이하자"

인간사는 예로부터 衣·食·住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 인위적인것들에 적응과 도전을 통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해왔다。비단 인간사뿐만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집단체역시 이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영욕의 역사를 가꾸어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집단을 꾸려나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회의 역사또한 어떤 면에서는 衣·食·住문제를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本會의 狀況을 돌고볼때 衣라함은 84年의 모교 歷史와 8萬이 넘는 同門들의 후광이라고 생각해 보고싶다。이런 側面에서 衣문제는 他大學의 同窓會와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

다음으로 食의 문제는 살림살이를 指稱하는 것으로 本會는 89年부터自立運營의 確立을 천명하여 89年末 運營委員會를 결성 財政自立에 지대한 공헌을 해오고 있어 食의 問題도 원만한 해결점을 찾고있다。

마지막으로 이글의 요지가 되는 住問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住라함은 그뜻 자체대로 생활의 근거시를 말하는 것으로 本會에 있어서는 事務局이 소재하는 同窓會館을 뜻한다。

本會 事務局은 근자에만도 여러번의 자리 바뀜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70年代 모교 교수회관을 사용하다가 80年代初 모교 학생회관의 한쪽을 사용했으며 그후 모교앞 대기 빌딩, 현재는 종로의 성화빌딩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本會 會長團을 비롯한 各界各層의 뜻 있는 많은 동문들께서 同窓會館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왔던 터이다。그 실예가 86년 本會가 校外로 이전하면서 全東國人의 요람이 될 同窓會館건립기금 모금을 시작해 만 2년만에 2억이 넘는 건립기금을 적립해온 사실이다。이러한 礎石을 바탕으로 회장단과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건립기금 모금운동과 구체적인 회관건립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물론 동창회관이 좋은 건물을 갖고 교외로 나와야만 하는 필요성은없으리라고 본다。지난번 정기이사회에서 회장님의 인사말 중에도「외국의 유명대학 (하버드, 윈스콘신, 시카고대학등) 도 동창회관이 모교안에 자리잡고있어 오히려 졸업한 동문들의 모교애를 고취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동국 1백주년을 내다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동국인 모두는 전동국인의 요람이 될수 있는 동창회관건립에 총 매진해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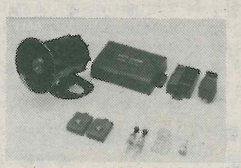
옛날 인도양에는 도도새라는 조류가 살고 있었다。이 도도새는 날개사용하는 법을 잊고 지냈다。결국에 가서는 퇴화되어 지구상에서 멸종되고 말았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雄飛東國을 다짐하는 뜻에서 全東國人은 同窓會館 건립에 내가 먼저 參與한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거듭당부 드린다。

도도새의 전설처럼 잊혀지는 모교애가 아니라 飛翔하는 東國人이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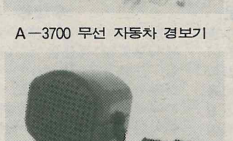
국내 경보기 수출 1위

고려 경보기 국내 시판개시



A—3700 무선 자동차 경보기

HS—2500 무선 가정용 경보기



SR—70 무선자 동차 경보기

A180 충격감지기

수출만 하던 고려경보기가 이제 국내시판을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영어, 불어, 독어, 서반아어, 화란어등 5가지 언어의「말하는 경보기(Talking Alarm)」을 개발하여 발명특허를 획득한 고려경보기—

그동안 미국의대규모 자동차 경보기 회사들에 수출만 해오던 저희 고려경보기에서는 주택및 점포, 자동차 경보기를 개발, 국내시판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명메이커들의 그동안 경보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자신을 가지고 국내 여러분에 공급,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립니다。

고 려 경 보 기 주 식 회 사

서울 송파구 석촌동291—13 TEL : 414—8331/2(代)
중앙사서함 4331호 TEL : 423—6119(直)
FAX : (02)414—7922
천안공장 : 천안시 백성동 14—6 TEL : 552—0891(代)
FAX : 552—8263

代表理事 金 淳 泰

韓·美 자본교류협력등 협의

鄭在哲회장 미국방문

▲鄭在哲(52정치·産銀 이사장)총동창회장은 지난 5월11일 미국을 방문, 데니스·웨더스톤 모건은행장및 월터 쉽프리 케미컬은행회장등 美금융계인사와 만나 한미양국간의 자본교류 협력및 한국금융업계의 국제화등에관한 협의를마치고 지난22일 귀국했다.

한편鄭회장은 지난6일盧泰愚民自黨총재로부터 政策評價委員으로 임명되기도했다.

治安本部長 李鍾國 同門

지난 6월21일 발표된 정부의 次官및 市道知事급 인사에서 李鍾國(57영문·본회 부회장)동문이 서울시경국장에서 치안본부장으로 영전했다.

59年 간부후보11기로 경찰에 투신, 전남 무안경찰서장, 용산, 종로경찰서장, 치안본부 감식과장, 충남도경국장, 치안본부조정관, 서울시경국장등을 거쳐 만 31년만에 치안총수자리에 올랐다.

한편 대인관계가 원만한 이동문은 경찰내에서 대표적인온건·합리주의자로잘알려져있다.

一鵬문학상 시상식

徐京保 동문

徐京保(51佛敎·제17차 세계불교도대회 조직위원장겸 대회장) 동문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세검정 일붕불교회관에서 嚴漢晶(시) 吳榮錫 (소설) 全圭泰 (학술) 씨등 제9회 一鵬문학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思想 학술회의

金三龍 동문

원광대총장 金三龍 (56佛敎·원불교사상연구원장) 동문은 지난 5月11日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한국사상과 小太山사상」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한편 金동문은 6月2·3日 양일간 京都불교대학에서 열린「제12차 한일불교 학술회의」에도 다녀왔다.

國會常任委員長 大學진출

運營·財務·動資·保社등 4분의 1차지

▲黃明秀동문

▲金東英동문

▲金榮龜동문

▲崔炯佑동문

東國人의 각계에서의 활약상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더구나 政界에서 차지하는 東國人의 비중은 더이상의 언급을 필요로 하지않는다.

지난6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16명의 상임위원장중 운영·보사·재무·동자위원장에 金東英(60政治), 黃明秀(53政治), 金榮龜 (62經濟), 崔炯佑 (63政治) 동문이 선출되어 東國의 막강한 저력을 과시했다.

▲金東英(운영위원장·본회부회장) 동문=정계개편후 거대여당으로 출범한 民自黨의 첫 원내총무로 기용돼 활약하는 동안 입이 무거우면서도 융통성이 있어 협상 능력을 인정받아왔다.

정치적 고난을 인내와 의리로 극복한 4選의 중진으로 新民黨 원내총무, 民主黨 수석부총재, 사무총장등 당요직을 두루 거쳤다。한편 金동문은 東國발전을 위해서라면 모든일에 솔선수범하는 모범동문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黃明秀(보사위원장·본회 지도위원)동문=2共시절 도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줄곧 정통 야당가에 몸담아왔던 3選의원。新民黨당기위원장, 훈련원장, 議政同友會會長등을역임한바있으며, 원외시절 民推協간사장으로 민주화 투쟁에 힘쓰기도했다。한편, 黃동문은 자신의 주장과 노선에 충실한 義理있는 정치인이라는 평을듣고있다。

▲金榮龜 (재무위원장·본회부회장)동문=5共 출범과함께 民正黨에 투신 11, 12代 전국구로 2選한후 4·26총선때 서울 東大門乙에서 당선되었다。국회 재무위 간사, 民正黨원내부총무, 총재 비서실장등 역임。한편, 金동문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동문 유대강화에 남다른 신경을 쓰고있다고。

▲崔炯佑(동자위원장·본회 운영위원)동문=8代때 蔚山에서 당선된뒤 뚝심있는 야당의원으로 정치적 고난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오며 野圈통합을 주장하기도했던 4選의 중진의원。新民黨 부총재, 民主黨 원내총무를 역임하기도 했던 崔동문은 주변에서 따르는 사람이 많은 보스체질이라는 중평。

同門동정

本人의 近況이나 주위 동문들의 諸소식등이 있으면 언제라도 提報바랍니다。

古稀기념 논문집 봉정

徐燉珏 前總長

前모교총장 徐燉珏 학술원 회장이 古稀를맞아 6월14일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자들로부터 기념논문집을 봉정받았다。

徐박사는 국내 상법학의 태두로, 법철학의 권위자로 법학의 기틀을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평생을 바쳐왔으며 모교 제7대 총장및 서울대 법대학장과 경북대총장등을 역임하면서 숱한 제자를 배출했다.

이번에 증정받은 논문집은 「동서양의 법철학과 사회철학」으로 국내학자 30여명과 외국학자 10여명으로부터 논문을받아 묶은 것으로 7백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徐박사는 古稀의 나이에도 독실한 불교신자답게 매일 아침 집에 모신 불상에 1백8배를 올리는 일을 거르는 적이 없는데이것이건강의 비결이라고。

한편 徐박사는 지난 5월22일 이스라엘 과학원장 초청으로 출국, 양국간 학술교류를위한 양국학술원교류의정서를 교환했으며 이어 그라나다에서열린「법과 사회철학」세계집행위에 참석하는등 두차례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ROTC中央會부회장

元容璇 동문

ROTC 동문회회장 元容璇(63영문·본회상무·(주)남양전기대표)동문과李濟坤(68경제·본회이사(주)스탠다드대표) 동문이 지난 6월27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ROTC예비역중앙회총회에서 부회장과 상임이사에각각 선출됐다.

전국70여개대학출신의 ROTC1기에서 26기까지 예비역9만5천여명을 회원으로 하는 同會는 국가간성으로서의 사회적책무 실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으며 다수회원의 절대지지속에 피선된 元, 李동문은 ROTC 1기, 6기 출신으로 방대한조직의 중책을 맡아 東國학군단의 전통을 재확인, 모교ROTC동문들의 사회진출에도 큰힘이 될것으로 보인다.

「바다와나비」詩碑건립

金起林 前 모교교수

東國大學당시 모교 영문학교수로 재직했던 납북시인 故 金起林선생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詩碑가 선생의 모교인 보성고 교정에 세워져 6월9일 제막됐다.

30년대에 정지용, 이상등과 함께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쓰며 이미지즘과 신고전주의를 소개, 한국현대시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선생은 해방후 母校에서 시론과 문학사상을 강의했으나 6·25때 납북됐다.

이번에 세워진 시비는 전면에 그의 대표작「바다와 나비」가, 뒷면에는 연보등이 새겨져있다.

불우보훈자 초청 오찬

金遺腹 동문

金遺腹(51정治·本會指導委員·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 대표이사)동문은 26일 6·25 40주년을맞아 태극무공훈장 수훈자로 생활이 어려운 金萬述예비역 대위등 4명을 호텔신라로 초청 오찬을갖고 금일봉과 선물을전달。

연극「마리마리」연출

정 진 동문

중견탤런트 정진(64연영)동문이 극단 제작극회의 「마리마리」연출을 맡았다。

TV에서 폭넓은 연기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정동문은 모교연영과 1기생으로 재학시절부터 희곡을 발표하기도 했던 재간꾼。

그가 연출하는「마리마리」는 어느 이혼부부의 재결합을 그리고 있는 하이코미디物로 6월15~28일까지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將軍출신 첫 개인전

李根陽 동문

서양화가 李根陽(52政治·사단법인 한국일요화가고문) 동문은 지난6월27일부터 7월2일까지 中區 롯데백화점 7층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개인전을열었다。

「自然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外光派가 되었다」는 李동문은 군장성 출신으로 예편후 줄곧 붓을 잡아온 서양화단의 중견작가로 활약중。

「인도학」창간기념회

元義範동문

元義範(54불교·모교명예교수) 동문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인도학·인도철학회의학회지「인도학·인도철학」창간기념회를 지난5월25일 모교 동국관에서 가졌다。

각대학의 종교학·철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지난88년 4월 창립한 이 학회는 그동안 인도의 철학과 사상, 역사등을 폭넓게 연구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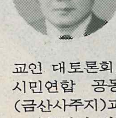
홍콩 개점10주년행사

宋寶烈동문

제일은행장 宋寶烈(57경제·본회부회장)동문은 지난5월1일 제일은행 홍콩현지법인 개점10주년을 맞아 홍콩금융계 인사와 현지교민등을 초대, 홍콩의 만다린호텔에서 자축리셉션을 가졌다。

경제정의실현 토론회

韓相範동문



한국 교수불자 연합회장인 韓相範(58법학·모교교수)동문이 지난5월25일「경제정의 실현을위한 불교인 대토론회」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의장 宋月珠스님(금산사주지)과 함께 열었다。

서울강남 반도유스호스텔에서 가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高준환(경기대) 李根植(서울시립대) 교수와 이법산스님(경기사암연합사무총장) 이 발표, 정혜영(경희대) 교수등이 불교의 입장에서 본 경제정의의 의미와 이의 실현을 위한 불교인의 역할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경제법연구소 개설

金永秋동문

부산 경성대 교수로 재직중인 金永秋(64법학)동문이지난5월 內外經濟法연구소(광화문 한글회관 305호 T722—7089) 를 개설했다。

경제법 이론의 연구및 교육, 경제법 정책의 조사·연구, 기업경영법의 조사·연구, 노동자및 소비자 교육을 목표로한 同연구소의 개설기념으로 金동문은 자신의 저서「경제법연구(1)」을 출간했다。

金동문은 모교재학중이던 62년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 79년 모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제처 전문위원, 법제관등을 지낸바 있다。

교통경찰상 강연

尹山鶴동문

尹山鶴(66법학·본회이사·한국편집기자협회사무국장)동문은 지난5월24일 도로교통 안전협회대강당에서 전국교통경찰관 간부들에게「국민이 바라는 교통경찰象」을 주제로 강연했다。

통일기원음악제 열어

李起彬 동문

民自黨의원 李起彬(79행원·본회부회장)동문은 지난5월19일 在蘇동포 성악가인 루드밀라南씨를 초청, 제주도 문예회관에서「한라에서 백두까지의통일기원음악축제」를 가졌다。

한편 李동문은 지난5월6일 서울종로宗廟에서 열린 全州李氏대동종약원 宗廟大祭에 제주도 대표祭官으로 참석한바 있다。

解深密經疏 번역끝내

鄭炳朝 동문

모교교수 鄭炳朝동문(71·인철)에 의해 묻혀졌던 한국불교사의 귀중한 자료가 밝혀져학계의관심이 집중되고있다.

鄭동문에 의해 밝혀지는 자료는 7C중국에서 활약한 신라왕족출신 圓測스님의「解深密經疏」제10권으로 지금까지 9권만 전해왔으며 10권은 그를 시기한 중국인들에 의해 유실된 것으로 알려져왔었다.

캐나다 劉在昌교수가 입수, 鄭同門에게 번역을 의뢰하면서 알려진 이책은 중국공산화이후 복원된것으로 鄭동문이 1년간의 번역작업끝에 8월초 출간할 예정.

자료수집차 만주방문

趙廷來 동문

「태백산맥」의 작가 趙廷來(66국문) 동문이 5월 한달동안 만주에 취재기행을 다녀왔다.

91년 1월부터 한국일보에 연재예정인 한민족의 流·移民史를 그릴 대하소설「아리랑」의 자료수집을 위해 趙동문은 우리민족의 애환이 서린 만주벌판에 살을 붙이고 사는 우리동포들의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돌아왔다고.

月刊「政經저널」발행인

劉基棟 동문

劉基棟(68경제·본회이사·대한민국 유공사 발간위원회 위원장)동문은 최근 종합시사지「월간 政經저널」을창간, 발행인에 취임했다.

정치·경제·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고 21세기를 향한 창조의 길잡이가 되는데 창간의 목표를 둔 劉동문은 한편 현재 추진중인「光復半世紀 現代人物史」에 수록할 인물의 선정, 발굴에도 많은 동문들의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연락처 (719—0105)

「살아있는死者」출판회

李相大 동문

李相大 (70철학)동문의 출판기념회가 제자들에 의해 지난 5월12일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마련됐다.

76년 모교에서 철학석사학위를 취득한바 있는 李동문은 현재 덕성여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이번에 출간된 저서는「살아있는 사자」.

학술교류 방안 논의

金翰周동문

한국 사회정책연구원장 金翰周(72대원·본회이사·前경기대총장)동문은 지난 6월 2일 美미시간州 알마大의 알란·J·스톤총장을 초청, 학술교류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金동문은 6월20일 김영식 前문교부장관의 후임으로 한국지도자 육성장학재단 이사장에 취임.

21세기 특별 강연회

李箕永 교수

李箕永 모교교수(한국불교연구원장)는지난6월10일 동연구원에서 연구회관 마련을 기념하는 법회를 갖고 이어 7월 1일부터 6일간「21세기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을주제로 특별대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에는 박완일(61불교)조계종전국신도회장, 鄭炳朝모교교수등이 주제강연을 했다.

중앙교육심의 위원에

韓明希·裵鍾根 교수

문교부의 교육정책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제2기 위원에 모교 韓明希, 裵鍾根교수가 위촉됐다.

지난6월7일 발표된 2년임기의 同會7개분과 60명의 위원중 韓교수는 교육 이념분과委, 裵교수가 고등교육분과委에 각각 소속되었다.

光州 발전연구 소개

李榮一 동문

李榮一(73行院·본회이사·前 국회문공위원장)은 光州시 서구 농성동 농성빌딩 5층에 光州발전연구소를 마련, 4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한독경제 심포지엄

趙熙榮 동문

한독경상학회장 趙熙榮(63경영·모교교수)동문은 지난5월 18일「기업가의 사회적책임」이라는 주제로 제8회 한독경제문제 심포지엄을 타워호텔 젤코바룸에서 가졌다.

三光印刷文化社 開業

全瓊柱 동문

全瓊柱(49文學·본회이사) 同門은 지난6월1일 九老區가리봉동에 三光印刷 文化社를 開業, 특히 全同門은 52차정기이사회때 배포된 15代 임원수첩을 짧은 시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제작 완료한 愛東國同門임.

연락처) 858—7074

보증기금 서독지점장

李運永 동문

李運永(70 농학본회이사)동문은 지난달신설된 신용보증기금의 서독프랑크 푸르트사무소장으로 발령을받고 가족과함께 임지로부임했다.

모교에서 행정대학원을 마치고 신용보증기금 안양지점 차장, 同본점영업부 차장등을거친 李동문은 이번 신설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부임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유럽국가진출지원및 국제전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조사, 정보수집및 기업간매개역할, 보증기업의 현지연락사무소 기능수행등을 통해 국익에 일익을 담당할것으로 기대된다.

국제복지회의 대표로

임말시아 동문

제주시회 복지회장 임말시아(79경원·본회이사)동문은「지역개발을 위한 인간의 차원 도전과 수용」을 주제로 모로코의 마라케쉬시에서 열리는 제25차국제사회복지세계대회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6월19일 출국, 세계사회복지 시설을 돌아보고 런던에서 열리는 유엔여성기구 ACWW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한후 7월 중순 귀국한다.

임동문은 지난82년 제주사회복지회를설립,향토의 복지발전과 향상을 기하고 점진적인복지실현을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각종기술교육및 상담을 제공하여 보호대상자들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사회복지에 기여하고있다.

임동문은 현재 同會의 후원회를 모집하고 있으며 연락처는 제주시 용담2동 630-12(전화는 제주46-3302, 46-1769, 46-0086.

한·소관계 세미나

林德圭 동문

林德圭(60·法學본회이사) 더프로머시회장은 15일오전 8시 프라자호텔에서 尹致暎 박사와 辛承權 한양대교수를 초빙「韓·蘇정상회담과 한국외교전망」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프로전향식 가져

金光善 동문

아마복싱의간판스타로 활약하던金光善(87체교)동문이지난5월23일 하랑스포츠 타운과 계약을 체결, 프로전향식을갖고 직업선수로 변신했다.

계약금 1억6천만원으로 화려한 명성에 걸맞게 사상최고의「몸값」기록을 세운 金동문은내년 주니어플라이급 세계정상도전을목표로 오는8월쯤 데뷔전을 치를계획이다.

전북 군산에서 출생, 11세때 구두닦이 3형제의 막내로 상경한 金동문은 한양공고 1년때인 80년 복싱을 시작하여 타고난 감각과 남다른 투지로 88올림픽및 86아시안게임 금메달, 월드컵 2차례 우승등 88년11월 은퇴할때까지 9개의 국제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며 142승(85RSC및 KO)6패의 대기록을 남겼다.

結婚

▲朴英錫 (71政外)=5월14일 귀빈예식장에서 화촉

▲宋昔燁 (68農經·본회이사)=5월17일 12시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아들 화촉

▲金鍵植 (58政外·본회이사)=5월19일 하오4시 태극당예식부에서 長女 暎美양 화촉

▲吳正權 (61經濟)=5월26일 하오2시 교통회관에서 次男 泰煥君 화촉

▲韓憲錫 (78經院·본회 이사)=6월2일오후1시 만리장성에서 장남 文洙군 화촉

▲李尙敦 (86韓醫·본회이사·서울·경인 한의과대동창회장)=6월10일 하오1시 롯데월드 새나라백화점 5층 매실에서 화촉

▲金龍模 (59經濟·본회상무이사)=6월23일하오1시 태극당 예식장 1층영실에서 장남 然郁군 화촉.

出入國

▲曺武成(64경제·본회이사·광운대총장)동문=지난6월17일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묘령대학을 4명의 교수와함께 방문, 교수—학생—학술교류 및 아세아—태평양대학원 공동운영 방안을 협의했다.

▲南雄鍾(76행원·본회이사·한국방송광고공사사장)동문=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제32차 세계광고인대회(IAA)에 참석하고 영국중앙공보원등 유럽 방송계 시찰및 공익광고운영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6월9일 출국했다.

▲權奇悰(61佛教·本會理事)동문=7월9일 중국으로 출국하여 9일간의 일정을 마치고17일 귀국예정.

▲徐京保 (51불교·제17차 세계불교도대회 조직위원장겸 대회장)동문=세계불교도 서울대회를 위한 WFB본부집행대회를 24~27일 태국 방콕에서 갖고 대회 일정, 장소등 제반 문제를 확정지었다.

訃音

印丁一同門 別世

印丁一(72행원·前본회이사)동문은 지난 5월 26일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숙환으로 別世했다.

고 印동문은 東友會 부회장, 行政大學院 부회장, 本會理事등의 重責을 맡아오면서 東國發展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은 愛東國人 이었다.

▲趙勳(77법학)=5월15일 別世

▲劉楊勳 (77經營)=5월21일 母親喪

▲梁正五(81行院·본회상무이사)=6월18일 父親喪, 발인21일 장지 밀양시 용평1동수산선영

▲韓相鍾(前 모교교수)=지난 5월10일 別世 발인 12일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서

새주소를 알려주세요

※다음은 본회가 파악한 새주소입니다. 아직도 會報를 받아보지 못하시는 동문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곧 보내 드리겠읍니다.

▲김용하(85경영)=서초구방배동969—34

▲김제국(61경제)=송파구오금동44 가락현대 3차Ⓐ38—1103

▲유동우(59경제)=인천시북구장기동74—7(515)5067

▲이주형(65경제)=용산구한강로2가191(국제BD내) 농수산물유통공사 감사실장 (798)2870

▲김광수(82철학)=광명시하안동 주공Ⓐ502—1506(804)3764

▲강태우(62국문)=서초구반포동 경남Ⓐ9—110(732)1323

▲인흥시(65국문)=성동구행당동3—46 배광기획(293)0486

▲차운석(84교육)=서초구방배동816—1 나산실업(591)8111

▲손영근(83경원)=송파구잠실동331 현대Ⓐ101—711

▲안정호(66정외)=서대문구북가좌동342—16 명지빌라102호(303)4249

▲전갑수(58법학)=관악구봉천동636—31(27/4)(878)8832

▲설경일(68경영)=송파구 천호2동 466—15(488)2484

▲이건욱(65경제)=종로구 공평동 100 제일은행 검사부 검사역

▲김인수(89경제)=경기도 안양시 안양7동 121—23 (20/1)(42)5338

▲인철수(64경제)=송파구 삼전동 199—16(423)5350

▲김병훈(60국문)=도봉구 쌍문2동56 삼익세라믹Ⓐ 106—507

▲김태형(63경제)=도봉구 도봉2동 87 삼환Ⓐ 1—501

會費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理事會費

▲마경자(53국문)=5
▲김현권(71경제)=〃
▲윤연상(75행원)=〃
▲이운영(70농학)=〃
▲이제곤(68경제)=〃
▲양수성(65경영)=〃
▲김건식(58정치)=〃
▲이영길(68농생)=〃
▲송석구(62철학)=〃
▲정대진(63법학)=〃
▲유수택(64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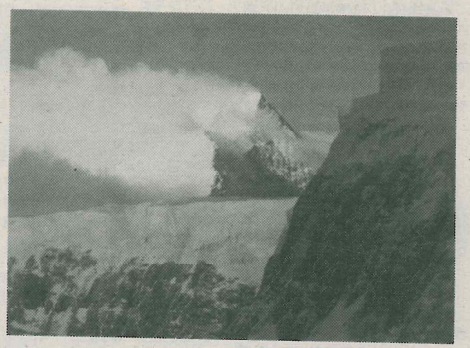
◇年會費

▲강소안(85전산)=1
▲문승덕(75행원)=〃
▲이호건(79행원)=2
▲이용광(86경원)=2
▲김기석(85무역)=1
▲이일갑(84식공)=〃
▲조희양(73행정)=〃
▲박영수(69상학)=〃
▲한경희(49문학)=〃
▲김병우(69증생)=〃
▲전미선(80교육)=〃
▲정석구(49문학)=〃
▲조영식(74행정)=〃
▲원소평(88한의)=〃
▲박성희(86경영)=〃
▲이근양(52정치)=〃
▲허정균(49문학)=〃
▲조상원(60사학)=〃
▲김정근(60경제)=〃
▲함원용(농경)=〃
▲한창욱(62영문)=〃
▲이명인(85한의)=〃
▲김세란(83경원)=〃
▲최창근(81무학)=〃
▲이재필(83농경)=〃
▲이진월(84승가)=3
▲김명식(60법학)=1
▲정 혁(58경제)=〃
▲심갑식(62경제)=〃
▲이신곤(59법학)=2
▲임세영(56경제)=1
▲송상화(88한의)=〃
▲한영석(58법학)=〃
▲신관호(73경제)=〃

총계—94민원

蘇聯코뮤니즘峰 挑戰

모교산악부, 大學單一팀으로는 최초



東國山岳會 (회장 李重雄) 는 7월10일부터 한달동안 소련의 최고봉인 코뮤니즘峰정상정복에 나선다。

해발 7천4백95m인 코뮤니즘봉은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파미르고원에 자리잡고있으며 한여름인 7월에도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과 눈보라를동반한 강풍등 악천후로 정평이 나있는험한 등반코스。

이번등반에는 대장 李仁禎(72商學·한국산악회회장·(株) 태인 대표)과 등반대장 김광진대원 安奎燮(82건공) 박영석(체교4) 金鎭晟 (전산4) 윤태영 (산공4)으로 구성 동국산악회OB팀과 재학생 3명으로 그위용을 갖췄다。

지난해 7월 대한산악연맹 등반대가 이 峰정복에 도전했으나 악천후로 정상을 3백여m 앞두고 하산 등정에 실패한뒤 동국산악회가 대한산악연맹의대표로「등반올림픽」인 소련국제산악대회에 참가해 재도전 한다는데 이번 등반의 의의가있다。

한편 이번 등반대는 해발3천7백여m 지점에서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1주일간 고소적응훈련을 마친뒤 7월18일부터 등반을 시작해 30일에는 정상공격에 나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金鎭晟군은『지난4월 소련체육부 국제사업부로부터 소련국제산악대회 초청장을 받고 준비해 왔다』며『동구권 산악인들과 만나 한국산악계의 등반및 장비수준을 보여주는 기회도 아울러 갖겠다』고 말했다。

母校 하계방학 돌입

모교는 90년도 1학기 학사일정이 지난달 22일로끝나게됨에 따라하계방학에들어갔다。

방학기간중인 오는 8월7일부터 실시될 2학기 수강신청 확인및 정정은 종합시간표의 적정성이 늦어진 관계로 며칠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목멱축전·壬石자주 대동제

——東國祝典 성황리 펼쳐져

「목멱축전」이 「선언」이란 대주제아래 지난5월 30일부터 3일간 교내 일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축전은 전야제 행사인 민중가요 한마당을 시작으로 남사당패 초청공연, 민중연대 한마당, 노문연「진군」공연등이 개최되었으며, 「동국미전」등을 비롯한 각종 전시회, 「농구대회」등의 체육행사,「응원제전」등의 공연, 학술 심포지움등이 열렸다。

한편 경주캠퍼스에서는 입석자주대동제가 5월15일부터 5일간 「제나라 남의것으로 빼앗겨 화승총메고 맞섰던 옛 전사의 산맥으로 가자」라는 기치아래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펼쳐졌다。

이번 대동제에는 개막진을 시작으로 입석가요제, 공옥진 여사 초청공연, 5월혁명 계승제, 「오! 꿈의 나라」 상연, 광주순례단 출정식, 백상연 등이 열렸다。

演劇映畵科 28회 졸업 공연

안톤·체홉의 「세자매」에 갈채

모교연극·영화과는 제28회 졸업공연으로 「안톤·체홉」작품인 「세자매」를 지난 5월29일부터 31일까지 중앙국립소극장에서, 6월4일부터 9일까지는 모교 연극·영화과 스튜디오에서 공연 갈채를 받았다。

「세자매」는 고인이된 한 장군의 세딸을 그리고있다。그들은 소련의 극북에 있는 한지방 수비대촌의 정교들틈에서 연중 내내 눈으로 덮여있는 툰드라의 바람밖이 집에 살며 언젠가는 햇볕 따스한 모스크바로돌아갈 꿈을가지고살아간다。

결국은 모스크바로 돌아가려는 이들의 꿈은 무산되고 세자매는 다시금 현실의 생활에 직면하고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줄거리로 되어있다。

이 드라마에서는 철새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나타내어, 인생은 새의 비행과도 같은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박형규譯, 박영훈연출, 지도교수 安民洙, 최형하, 바경숙등의 출연으로 공연됐다。

母校,지난 1학기 獎學金 總15億 지급

총 4천3백63명 혜택계속증가추세

모교는「90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현황」을 지난 28일 최종 집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1학기 서울·경주 캠퍼스에지급된 장학금은 4천3백63명에게 총15억1천2백17만8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캠퍼스 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2천7백70명에게 지급됐는데 그중 교내 장학금이 2천4백64명에게 8억9천9백46만9천원이 지급됐고, 교외장학금은 3백5명에게 1억3천7백14만7천6백원이 각각 지급됐다。

경주캠퍼스 장학금지급은 1천5백94명에게 총4억7천5백56만2천원이 지급됐는데 교내장학금이 1천4백44명에게 4억2천2백58만1천원이 지급됐고, 교외장학금은 1백50명에게 5천2백98만1천원이 각각 지급됐다。

한편 모교당국은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를 최대한 늘인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으며 실제로 그동안 장학금지급액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와 면학분위기조성에 큰 몫을담당 해왔다。

한국 철학회 회장피선

모교 김용정교수

모교 철학과 김용정 교수는 지난 6월2일 열린 한국철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1대 회장에선임됐다。

김교수는 이날인터뷰에서『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거움을 느낀다。철학이란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철학의 숨결을 불어 넣을수 있도록 노력합니다』라고 소감을밝혔다。

全國高校 文學콩쿠르 盛了

詩部장원 김길련君등 입상

동대신문사 주최 「제28회 전국고교 문학콩쿠르」가 지난5월28일오전10시30분부터 시·시조·소설·수필 부문에 입선한 전국 남녀 고교생 1백32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신문사 주간 朴榮吉 교수의 모교소개후 오후1시까지 백일장에 들어갔다。

이어 吳國根부총장등 10여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이 거행됐다。

본선대회의 입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부장원—김길련(대구대건교3)·아침 ◇시조부장원—오윤정(구포여상3)·신시에서◇소설부장원—채송화(안양영화예술고3)·편지 ◇수필부장원—석연경(경동고3)·일장기 ◇단체부—경동고등학교 문예반。

ROTC 연꽃제 개최

후배위해 VTR 기증도

모교 학군단은 지난달 2일 오후6시 체육관에서 元容璇 (63영문·ROTC 총동창회장)과 朴相鎬(67화학)학군단장을 비롯 ROTC동문등이 참석한가운한 연꽃제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元회장은 인사말을통해『ROTC 후배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元容璇會長과 朴相鎬학군단장 김승유(67정오)ROTC 5기會長등은 후배들의 시청각교육을 돕기위해 100만원상당의 VTR을 학군단에 기증해 他支部 支會의 귀감이 되었다。

"退耕堂 全書" 10卷 完刊

權相老박사 기념사업회

韓國 佛敎史의 일대쾌거로 평가

退耕 權相老(08明進·母校前總長)박사의 생전의 저서와유고를 한데모은「退耕堂全書」제10권이 退耕堂全書 간행위원회에 의해 完刊되었다。

「退耕堂全書」는 후학들이 退耕堂의 광활하고 수려한 저서를 한데 모아 발간한것으로「한국불교백과」로 불릴만큼 그 내용과 깊이에 있어 귀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退耕堂 20周忌를 맞아 母校 1회 졸업생 대표 李外潤(50佛敎·불교통신대학학장) 李丙疇(50國文·母校명예교수) 李英茂(50政學·태고종총무원장) 동문등 후학들이 뜻을 모아「退耕 權相老박사 기념사업회」를 발족한후 첫번째 사업으로事蹟碑를건립하고 두번째 사업으로全書간행에착수했다。全書는 漢文記述本7권과 國漢記述本3권등 총10권으로 꾸며졌는데 이중 중요저서 몇가지를 살펴보면 「한국불교관계자료鈔」는 8백여종의 法文集에 수록된 불교관계 제재를 발췌한 자료집으로 일목요연하게 간추려져 있으며 인명되어 해독이 불가능한 사본까지 독파되어있다。

또 地名의 고금연혁을 소상하게 밝힌 「한국지명연혁사전」과 박람강기로 교설한법문집 「권명의길」에서도 退耕堂의 학문적 깊이와 문학적 감각이 엿실히 드러났다。

退耕堂은 1908년에 明進학교를 졸업함으로써 母校와緣을 맺은후 46년에 동국대학으로 승격한 모교의 초대총장을 역임했으며 62년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했고, 그해 8월에 정부로부터 문화대훈장을 받았다。

지금 문의하십시요!

○인테리어 디자인·시공·감리
○실내외장식·디스플레이등 자료제공
○각종디자인 설계도 제공
※광고간판·네온싸인

TEL 465-1262, 469-7856
FAX 469-7592
주식회사 성 암

SERVICE COCKTAIL

도시락·단체급식 TEL 273—2631~4
출장연회 써비스 FAX 273—2633
우 리 식 품(주)
●카테일Party ●주문도시락
●한식·양식부페 ●답식용역(출장식사)
●다과Party등 ●부식추진
●각종Party기획연출 ●청소년(유아)야외캠프
代表：劉基棟(68경제) 專務：林采洪(77경제)

先代로부터 전수해온
國內外 有名畵家·書藝家의 大作
※中國·자유중국·소련의 대표화가 작품 多數
—西翁·一鳴큰스님의 휘호
—楠田 姜英熙화백의 무궁화천지
—青昊 申奇永화백의 日出
—洛峰李學相, 法雲 全慶道화백의 병풍
—秋庵 安永均화백의 青竹
馬, 달마도, 잉어, 호랑이, 매화, 석류, 닌꽃, 목단등 산수화 및 東·西洋畵의 약80점
(02)719—0109 =所 藏 者=
(032)656—6660 유 기 연
公告

메기의 追憶

——43年前 東大學窓 時節——

李 根 三
▲52年英文科卒
▲劇作家
▲西江大 英文科敎授
※48년당시의 필자

내가 東大의 前身인 惠化專門에 들어간 해는 1947년。지금으로부터 43年前의 일이다。동창회 崔부회장으로 부터 在學時 기억에 남는 일을 적어 보라는 下命을 받았다。내나이 벌써 回甲을 지냈으니 기억나는 일보다는 잊은것이 더 많다。그래도 며칠을 두고 작동이 안되는 머리를 두들기니 아득한 옛날의 追憶이 하나 둘 되살아 난다。

單身越南하여 친척집에서 더부살이를하며 호구지책으로 家庭敎師를 하고있던중 惠化專門에서 編入生모집이 있다는소식을듣고 앞뒤 생각할틈도없이혜화동교사로 달려갔다。지금 普成高校가있는 이웃에 3층벽돌집한채와 손바닥만한 운동장이 惠化전문의 전부 였다。빈약한 건물에 실망을 했지만 나로서는 그런걸 따질입장이못됐다。우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기때문이었다。

당시 교무과장은 異河潤선생님이셨다。맨손으로 넘어온지라 나는 평양에서의 학교생활을 증명할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平壤師範을 나왔으며 그때 서울大學에 계시던 李崇寧선생님이 나의 담임선생님이었다는 사실을 말했더니 異선생님은 師範學校학생들의 이름은 옛날 총독부의 官報에 실렸을테니 그걸 찾아 보겠으니 기다리라고 하셨다。며칠후 가서 뵈었더니 선생님은 응시자격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다。

당시 文學科에는 두반이 있었다。A班은 그야말로 순수파 集團이었으며 자부심도 강해 우리처럼 編入해 들어온 B班학생을 우습게 보았다。B班학생들은 나처럼 以北서 늦게 넘어온 친구들, 日本서 늦게 歸國한 사람들, 社會生活을 하다 공부하기위해 때늦은 老學生이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였다。그래서 그런지 나이도 많아 30대 학생들도 있었다。나는 가장 어린축에 끼었다。

金東華선생님의 佛敎槪論과權相老선생님의 漢文강독이 나를 괴롭혔지만 다른과목은 그런대로 재미있었다。梁柱東선생님의 文章論강의는 학생들을 휘어잡았다。교사구경을 하다고 筆洞에 가보니 참말로 한심했다。낡은 절이 하루아침에 대학으로 변신해 大雄殿격인 큰건물을 중심으로 옛날 절의 사무실로 쓰던 목조건물, 언덕밑으로 또한채의 절부속건물이 전부였다。

교사에 실망하고 그때 다른 대학으로 떠나버린 학생들도많았다。그러나 정이란 묘한것이어서 1년동안 같이 놀며 소화되지 않은 문학론토론에 시간 가는줄 모르고 지낸 동료들의 응집력 비슷한 힘에 이끌려 그대로 머물수 밖에 없었다。

특히 우리를 東大에 묶어놓은 것은 정도 들고 우리를 친자식처럼 잘 대해준 교수님들이었다。梁柱東, 金起林, 林學洙, 李皓根, 朴鍾鴻, 李秉岐, 異河潤, 皮千得, 崔鳳守, 白鐵, 吳宗植, 洪以燮, 趙東弼, 鄭寅燮선생님들등 당시 자타가 인정하는 훌륭한 교수분들이 우리를 지도해주셨다。공부를 할만한 분위기는 전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우리는 용하게 참았다。

圖書館이란 케케묵은 책들뿐이었고 교과서도 없어「가리방」이라는 등사기로 찍어낸 교재 몇장을 들고 英文學공부를 한 우리들이었다。그래도 우리가 실망을 많고 공부한것은 그 쟁쟁한 교수님들의 名講義를 듣는 즐거움 때문이었다。

1949년 당시에는 벌써 우리 학생들사이에서는 괴짜들이 배출되고 있었다。문단에서도 알아주는 李鍾山 鄭雲三 林英갈은 詩人들도 있었고 演劇界에 뛰어든 친구도 있었고 兪賢穆 兄처럼 벌써 映畵界에서 활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學校보다도 新聞社에서 더많은 시간을 보내는 記者들도 더러 있었다。당시에는 어떤대학보다도 우리대학학생들의 言論社進出이 활발했다。아나운서로 취직한 친구들도많았다。아직도 기억이 난다。어느날 崔致根군이 날더러 신문사시험을 보자고했다。능시랄생각도 있었으나 英文學공부에막 신비랄이 났는데 도중에 그 만두는것 같은 생각이들어 사양했다。

하루에 家庭敎師를 두탐쯤뛰어야 學費를 벌수있는 처지에 있던 나는 저녁까지는 할일도 없었고 갈곳도 없었다。그러니 假건물같은 교실 구석에서 책이나 보고 가끔 美國公報院도서관에 가는 일이 고작이었다。

그래도 樂이 있었다면 運動이었다。언덕너머 도서관쪽으로 가면 농구대가 있었다。본래 배구며 농구를 좋아한 나는 거기서 농구를 했다。지금 駐韓中國大使館의 參事官으로 있는 張金宮君과 LA서 살고 있는 당시 응원단장 金永柱君은 나와 단골농구친구였다。

東大서 주최하는 文學의밤은 늘 大滿員이었고 演劇班의 공연은 직업연극인을 놀라게 했다。뿐만아니 축구도 최고였다。서울운동장에서 함성을 올리며 응원단장 金永柱君의 그 징글맞은 (?) 몸짓을 보고 폭소하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그런가하면 이런 모든 활동에는 아랑곳없이 공부에만 몰두하는 崔鶴璇같은 공부벌레들도 많았다。아마 교수를 우리동기처럼 많이 배출한 期도 없을것이며 어떤 大學보다도 우리는 교수를 내랑 생산한것으로 알고있다。

이처럼 당시 나의친구들은각 분야에서 활약했다。하나같이개성이 강했고 열심히뛰었다。교수님들과의 關係도 對話의 경지를 떠나 자주 술자리를 같이하게 교단에서는 들을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를들었다。술에취해 교수와 어깨동무를하고 길을걸으며 노래도했다。교수님들과의 이러한 분위기는 졸업후 내가 大學교단에 선뒤에도 지속돼, 『야, 根三아!』하고 길가에서 또는 술집에서 만난교수는 나를 큰소리로 부르곤했다。

6.25사변이 나자 우리는뿔뿔히 헤어졌다。나도 3개월동안 서울市內서 숨어살다 軍에 지원해 무려 5년을 군대서 보냈다。학교는 釜山으로 피난해 광복동근처의 어떤 사찰에서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大學에 다닐때는 學點取得에 제한이 없었다。능력껏 하면 되었다。다른分野에 별로 소질이 없었던 나는 될수 있는대로 많은 과목을 이수, 3學年때는 거의 學科공부는끝난 상태였다。

휴가중 釜山에 갔다가 학교에 들러보았다。崔鳳守선생님을 만나뵈었더니 빨리 논문을 쓰라는 분부셨다。학점은 다끝났으니 논문만 내면 졸업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다。이리하여 전시중 1952년 나는 군복을입고 졸업식장에 섰다。

육사에서 11기생을 가르치다 1955년에 제대후, 나는 모교의 교단에 서게되었다。종전후 흩어졌던친구들이 다시 모교에모여들었다。동기이면서 한족은교수로 한쪽은 학생으로서 다시 만나게되었다。

피차 쑥스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학생의 신분이된 동기생들은 담담히 앉아 우리의 강의를 경청(?)했다。그런가 하면 林英碧같은 친구는 학생오로 등록하러왔다가 우리를 보고『너나 李昌培같은 것의 강의를 듣느니 차라리 학업을포기하겠다』고 교문을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그러면서도 지금 만나면 우리는 그때의 철모르는 친구로돌아간다。

지나간 일은 그것이 고통의 연속이었을망정 흐날 생각하면 아름답게 연상되는 법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제대로 못먹고 제대로 못입고, 읽을책도 적었던 옛날 나의 학창생활이 오늘날에는 낭만적으로만 느껴진다。우리 동창들중에는 괴짜들이 많았고무엇보다도 同志愛 비슷한 것이 팽팽했으며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 허물이 없었다。

나는 대학교수를 36년째 하고있지만 날이 갈수록 학생들은 뚜렷한 개성이 없어진다。平準化가 무엇인지…。오늘날東大는 엄청나게 體重이 늘었다。그러나…그러나…。그 자랑하던 文學은 퇴색되어가고 이렇다할 특색을 찾아 볼수없으니…아마 時代와 社會의 탓일게다。

"쟁쟁한 敎授들의 名講義와 學生들의 旺盛한 學究熱"

최고 년 14.26% (B급기준) 수익률 보장!
자유CP는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금액 • 3,000만원 이상 만기 • 90일 이상
확실한 투자 행복한 미래
대한투자금융
DAIHAN INVESTMENT & FINANCE CORP.
서울명동네거리 투자상담 777-4491
대 대 표 771-06

現代不動産仲介㈜
全國不動産仲介業協會 代議員
代表理事 副社長 金 炯 敏 (75 경행)
대표전화 511-0781 FAX. (02) 547-5742
강남구 신사동 618-3 뉴서울BD B109호

회비… 1년에 1만원

회보제작·장학기금마련·사무국운영에 긴요

주체적인 참여의식을 갖읍시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同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 속에 總同窓會는 사무전산화를 통한 동문 조직강화와 모교발전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읍니다。

同門여러분 스스로가 總同窓會의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갖고 自立運營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會費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회비내역
- 一般會費…1만원
- 理事會費…5만원
- 常務理事…20만원
- 단체회비…회원수대로
- 해외동문회비…$20
- 監事…20만원
- 指導委員…20만원
- 副會長…50만원
- 會長…100만원

납부안내
①은행지로이용(7500891)
②전화주시면 방문수납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733—3991~3)으로 문의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美國社會에 뿌리내린 東國人脈

——뉴욕교포 사회의 代母 그레이스姜

「뉴욕 교포 사회의 代母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지난달本會를 방문한 강금완 (그레이스 강)동문을 소개하는 세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 홍숙자동문의 말이다。

지난해 8월 뉴욕지부 총회에서 동창회 회장으로 피선되었다는 강동문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한인회 부회장직도 맡고있어 교포사회에서받고있는 명망이 어느정도인지를 짐작케 한다。

생명의 선물 한국위원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는 강동문은 『이 단체는 美로타리클럽 725지구 산하에 속해있는 기구인데 로타리클럽은 1982년에 전세계의 심장병 아동을 미국에 데려다가 수술하여 완쾌시켜 제나라로 보내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이때 한국분과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저도 이때 로타리클럽 회원이 되어 한국위원회 회장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선물 한국위원회는 지난 8년간 4백여명의 심장병 아동을 데려다 시술 완쾌시켜 보냈는데, 그렇게 완쾌되어 돌아간 아이들을 위한 후원회를 조직해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모색키 위해 이번에 방문했다는 강동문은 우선 아이들의 명단 작성을 위한 조직부터 구성해보겠다고。

뉴욕지부 동창회의 상황을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동문은 「다른 대학 동창회에 비해 우선 앞서가고, 무엇보다도 가장 행동적이라는게 큰 특징이죠。이유는 몇가지가 있겠는데,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다는 것과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다는것으로 요약 되어질수 있습니다」

동문들의 활동상은 뉴욕의 체육협회 회장, JC회장, 산악회회장, 완구협회회장등을 모두 우리 동문들이 맡고있다는 것이다。

한편 뉴욕지부에 등록된 동문수는 200여명이며, 한번 모임이 있으면 평균 100명 정도는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곤 한다고。개인적으론 밍크사업을 하고있기도 한 강동문은 여름의 한가함을 틀타 귀국 했는데 동창회를 찾은 것이 여간 기쁘지 않다며 환한 웃음。

한 李동문은 일정을 마치고 6월23일 출국했다。

&교차로

▲…스님李眞月 (84·승가) 동문이 지난 6월22일 본회사무국을 방문, 회비와 장학금을전달, 가슴을 찡하게 했는데….。

하와이에 거주중 방문차 귀국하여 출국을 하루 앞둔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를방문,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회비를 납부하지 못했다며 밀린 회비 3만원을 납부하는 한편,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절약한 여행경비 10만원을 전달한 李동문은「오랜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동국이 발전하려면 격식없는 선후배간의 대화의장이 많이 마련되어야 막힌 벽이 무너지고 동문간의 유대가 강화되어 발전의 토대가될것」이라고 방문소감을 밝혔다。

현재 하와이「대원사」에 적을 두고 있으며 在하와이 동문회의 재무를 맡고 있기도 한 李동문은 일정을 마치고 6월23일 출국했다。

▲…朴完一(61불교·본회부회장) 동문은 최근 BBS불교방송의「노주현 구지윤의 여성만세」중「박완일칼럼」을 맡아 특유의 |그러려니 삽시다」의 인생관을 날카로운 세태풍자와 함께 유머러스하게 풀어가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朴동문은 현재 조계종 전국신도회 회장을 지내고 있으며 그의 강연내용이 3년째 전국 카세트판매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달변가로도 유명하다。

▲…李信惠(85선학·법명正牧) 동문이 5월1일 개국한 BBS불교방송의 음악프로「차한잔의 선율」(매일상오9시)의 진행을 맡고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DJ가 되는 正牧스님은 모교재학시부터「釋林人의 밤」등 각종 불교행사의 기획·진행등을 해와 마이크와 친숙한데다 中央大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등「수행은 곧 사회활동과 직결돼야 한다」는 그의 자세가 어우러져 프로의 인기를 더해가고있다。

에세이집「그대뒷모습」

정채봉 동문

아동문학가 鄭琛琦(국문)동문이 첫 에세이집 「그대뒷모습」을 펴냈다。 <제3기획刊>

73년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 대한민국문학상」「새싹문학상」등을 수상한 바 있는 鄭동문은 현재 샘터誌편집부장으로 재직중이다。

시집「세상살이」

김초혜 동문

시인 金初蕙(66국문) 동문이

新刊안내

연작시집「세상살이」를 펴냈다。

80년대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사랑굿」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金동문은 이번 시집에서 우리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어 시세계의 변모를 감지케 한다。

「조선의용군 마지막분대장 1, 2, 3, 」과「환경미화원」4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집「빨치산 편지」

이원규 동문

李元揆(75·국문) 동문의 첫 시집 「빨치산 편지」가 나왔다。 <청사刊>

84년「월간문학」신인상으로등단, 88년첫 창작집「침묵의 섬」으로 대한민국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李동문은 그동안「훈장과 굴레」등 굴절된 현대사에 대한 애정과 치유의 문학세계를 펼쳐왔으며, 이번 시집에서는「마침내 사람은 혁명처럼」「산노을」「락장해방가」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수필「보고싶다라는말보다」

김광영 동문

김광영 (66哲學) 동문이 수필집 「보고싶다라는 말보다 더 간절한 것은 침묵이다」, 시집「우리는 사람에 굶주렸기에 그저 사랑에 굴복해야 할 뿐입니다」를 차례로 출간했다。 <박우사刊>

문인협회의 자유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인 김동문은「인생=여행」이라는 단순하면서도 의미깊은 명제를 여러 각도에서 저자 특유의 예리한 관찰력과 필체로 풀어가고 있다。

김동문의 작품으로는「정보사회학특강」,「인간과 정보활용」,「사랑은 미완성인가」,「북경의 어느 거리에서」등이 있다。

「개정가족법론」

韓琦熙 著

韓琦熙모교 (법학과) 교수는 최근「개정가족법론」을펴냈다。

가족법의 권위자인 韓교수는 지난해 국회서 통과, 91년부터 시행하는 개정가족법의 내용을 이책에서 新舊민법조문을 대비하며 해설하고 있다。 <대왕사刊>

"8만 東國人脈 총정리"

주소오기동문은 연락을

○…전동악인이 학수고대하던 인명록이 발간되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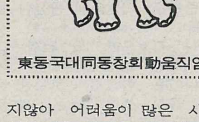
편집을 담당한 본회사무국에서는 가슴 뿌듯함과 함께 불안한 가슴을 죄고있는데, 그 이유인즉 동국인명록이 8만여 동문의 현황을 싣는 대작업인지라 백방으로 뛰며 자료를 수집하긴 했지만 오기되거나 잘못된 주소가 있을 것이라는 지레짐작 때문이라고。

同門광고…會報活路

○…제52차 정기이사회가 성황리에 끝났는데….。

이날 기다사회토의에서 등 우회보의 광고수입을 확대하여 동문회 자립운영에 기여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다。총동창회가 자립운영체제로 돌아선지 얼마되지않아 어려움이 많은 시점에서 이 의견은 여러사람들의 절실한 공감을 얻었는데。

本동동동子 여러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건의드리오니 광고의뢰가 많이들어와 회보의 활성화와 더나아가 자립운영체제를 확고히 다질수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부탁드립니다。



東동국대同동창회動움직임

양체족에 속지마시길

○…최근「동문」또는「총동창회」를 빙자하여 책을 판매하는 양체(?)가있어 각계동문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한다는데….。

본회사무국에는 이런 확인전화가 종종 걸려오는데, 사후약방문 격이 많다고。

本동동동子 선량한 동문여러분께 이런 양체 퇴치법을 귀띔하려하니, 항상 본회로연락하여 진위를가린후 대처하시압。

同門빙자 양체족 "요주의"

대우자동차(株)
89년신형 정통고급승용차 탄생
임페리얼 (3,000cc) 계약개시
로얄시리즈 (로얄프린스·듀크)
월드카르망 (GSE·옵티마·GTE·레이서)
JCAR
TEL 553-4712
487-7539(야간) 판매과장 : 崔鉉石 (74연영)
강남구 대치동960 성덕빌딩 1층

全國 林野·상가·빌딩 상담 및 안내
公認仲介士 정종철事務所
公認仲介士 鄭 宗 喆 (86경원)
●全國不動産仲介業協會 理事
●城東区 公認仲介士會 會長
전화 : (사) 234-4777, 238-9321-2 (자) 233-5799
서울 성동구 옥수동 243-35 (극동아파트 정문앞)

■西独 보쉬 純正品
연료節減
엔진출력증가/수명연장
■적옹자랑
현대·대우·기아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elastic

수입원 : 洋陽商事 (대표 : 沈載録·65경영)
TEL.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信一金属센터(株)
황동판·동판·황동파이프
동판지붕재·비철금속
대표이사 金 鍾 葉 (84경원)
본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58
☎ 924-6662, 924-6363

世進家具工芸店
TEL : 736-7887, 2311
■가정용 가구
■사무용 가구
■혼례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외)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 평 우 (70경영)